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2 WINTER



Care & Love



신경과
유봉구

Medical Essay

반려동물 키운다면 '천식' 조심해야
고기 너무 좋아해도, 극한 다이어트해도 '담석증' 부른다
부모 관심이 소아암을 조기발견, 소아암 의심증상은?
젊은층 유방암 발병 증가 여성암 1위 유방암
스마트폰이 부른 거북목증후군
갑상선암은 무조건 수술해야할까

유봉구 교수 · 신경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2 WINTER

발행인 오경승

발행일 2022년 12월

편집인 옥철호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장기려로) 262
T. 051-990-3700~2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Contents

Kosin Spirit

04 복음병원, 정체성 회복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06 암전문병원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박선자 교수·소화기내과

Medical Essay

08 반려동물 키운다면 ‘천식’ 조심해야 최길순 교수·알레르기내과

10 고기 너무 좋아해도, 극한 다이어트해도 ‘담석증’ 부른다 이정욱 교수·간내과

12 부모 관심이 소아암을 조기발견, 소아암 의심증상은? 공섬김 교수·소아청소년과

14 젊은층 유방암 발병 증가 여성암 1위 유방암 정성의 교수·유방외과

16 스마트폰이 부른 거북목증후군 김도연 교수·신경외과

18 갑상선암은 무조건 수술해야할까 이지은 교수·두경부갑상선내분비외과

21 독감백신 안내문

Culture & Life

22 가고, 오는 해의 사잇길 시약산 구덕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26 앞산 김희자·수필가

29 원목실 추천도서

Kosin Inside

30 유방, 갑상선외과 연수 보고 양호바야르·아가페기독병원(몽골)

34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36 포커스뷰

Donation

44 진료시간표

48 KOSin 사랑인

복음병원, 정체성 회복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영화 ‘트로이’에 “신은 인간을 질투해. 인간은 다 죽거든. 그래서 인간은 늘 마지막 순간을 살지. 마지막 순간을 사는 인간의 삶은 늘 아름다운거야”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종말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가치로 채워 나가는 인간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망각한 인간의 삶을 동물적 상태라고 했고 죽음을 시시각각으로 느끼는 삶을 신의 상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자신의 운명을 깨달을 때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관념은 상대적입니다. 결핍의 어려움에서 인생의 만족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 처절한 실패에서 성공과 행복의 의미를 깨닫기도 합니다.

경북 봉화의 지하 갭도에 갇힌 광부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벗어날 수 없는 수치심으로 몸살을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병원이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두고,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파업에 동참한 모든 분들도 상처를 가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른 병원은 “복음병원, 미쳤다”고 평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환자를 떠난 의료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장기려 박사님께서 전쟁의 상처를 가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세운 복음병원에서는 더 용인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복음병원의 정체성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살아 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여기고 삶에서 멀어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삶의 양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가치를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외침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막15:30).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여다”(막15:32). 죽지 않는 것 그리고 사망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예수가 신의 아들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심을 고집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함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 이상의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15:39)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기에 백부장의 이 고백은 반역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로마군인의 외침에서 하나님의 아들과의 참 만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막15:40-41).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감정, 사고, 주의력, 행동, 의식이 하나로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상황, 평가, 판단에 개의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몰입한 상태였습니다.

복음병원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연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참 만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육적인 삶이 완전히 전복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원함과 욕구를 포기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려는 욕망을 꺾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려는 영적 동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세포 하나 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일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과 연합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만 몰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참 만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 복음가족은 복음이 되고 복음병원은 생명을 창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복음가족의 삶은 하나님께서도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병원입니다. 

암전문병원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박선자 교수 · 소화기내과



“물론 의사는 환자의 병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 그게 어느 부위인지 잘 듣고 나서 그 다음 진단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소화기내과 의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사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 의료기관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다. 암 환자들이 발병 이후 수도권병원을 찾아 올라가면서 수술 시기를 놓치거나 경과가 오히려 좋지 않은 사례를 볼 때다. ‘서울 의료기관의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현재 위암이나 대장암 수술은 전국적으로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

내가 주로 하는 역할은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에 내시경으로 암을 수술하는 것인데, 내시경적막화박리술을 통해 부분만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담도내시경의 경우 굉장히 좋은 기계가 내시경실 안에 구비되어 있다.

보통 채담도내시경을 하려고 하면 영상의학과로 가지만 우리 경우엔 센터 안에 기계가 들어와 있다. 환자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어 시설적인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만약 위나 대장을 절제해야 하는 경우는 외과팀으로 보낸 뒤 항암 치료를 내가 맡는다. 그런데 이때 내시경을 통한 수술이 아닌 외과 수술만 하려고 하면 다들 서울로 가려고 한다.

물론 한편으로는 환자들이 서울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 꼭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드문 질환을 집중해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서울에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암 전문 병원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복음병원이다. 위암이나 대장암 수술을 하는 팀들이 오랫동안 역사를 이어오면서 다양한 사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오히려 이 분야만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직장암 환자 중에 직장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경우가 떠오른다. 서울로 올라갔지만 결국 항문을 못 살리고 내려온 걸 봤다. 물론 막상 수술을 해보니 상황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이 반드시 더 의술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20년 넘게 복음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다. 특히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같은 분을 오래 보게 된다. 그 중 결과가 좋은 분을 생각하면 내 가족의 일인 듯 기쁘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알고 보니 담당하는 환자가 초등학교 친구의 아내여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환자는 현재 항암 치료를 중단했고, 3년째 지켜보는 중이다. 다행히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의 적극적인 태도로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물론 암이라는 병이 정복하기 힘든 병이기에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도 많다. 4기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항암을 치료를 했던 19세 환자는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 30개월 정도를 더 살았다. 아직도 아이의 부모님과 종종 연락이 닿는데 그때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추억을 만들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신다. 수명을 좀 더 연장해주는 것 만큼이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다.

솔직히 말해서 소화기내과는 레지던트 시절을 생각하면 썩 재미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스태프가 되고 난 뒤에는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내과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진단을 해야 하는데, 사람 몸 안에는 간, 콩팥, 장 등 장기가 몹시 많아 상당히 진단하기 어렵다. 환자분이 배가 아파서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제대로 진단해내려면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수가 되고 나니 소화기내과야말로 정말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주변에 항암 치료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안다. 치료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항암 치료 기술이 정말 많이 개발되고 좋아졌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항암 치료는 가까운 곳에서 받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위암·대장암에 관해서라면 의심 없이 우리에게 오셔도 좋다는 것을.

“의사는 실력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야겠지요.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장기려 박사님의 후예니까요. 그런 정신들이 병원 곳곳에 많습시다. 저는 요즘 병원들이 영리화되어 가는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위 병원들이 생겨나면서 어쩔 수 없이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영리추구만을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

반려동물 키운다면 천식 조심해야

 **최길순** 교수 · 알레르기내과



알레르기 천식은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은 동물의 털 뿐만 아니라 동물의 비듬, 타액, 오줌 등 여러 종류의 물질을 통해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

발작적인 기침과 쌉쌉거리거나 가랑가랑하는 숨소리, 가슴이 답답하고 숨 찬 증상이 천식의 대표적 증상이다. 특히 이런 증상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요인에 노출되면 증상이 생기거나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여름에 에어컨 찬바람에 노출되거나 담배연기, 먼지 많은 곳에 갈 경우 증상이 생기고, 낮보다는 밤에 심한 양상을 보인다. 일부 환자에서는 숨찬 증상은 없이 단순히 마른기침만 지속된다든지 목에 가래가 걸린 느낌의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침감기가 자주오고 한번 걸리면 감기 유사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밤이나 새벽에 기침이 더 심해지고 숨이 찬 증상이 생기는 경우, 추운 날 외출·운동·등산할 때 등 특정 환경에서 기침이나 쌉쌉거리는 소리가 나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 콧물·재채기·코막힘 등 알레

르기 비염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천식을 더 의심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천식관련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원인

천식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의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알레르기 원인물질이나 대기오염, 흡연, 바이러스 감염 등의 여러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병한다. 이중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도 중요하다. 알레르겐이라고도 하는 알레르기 원인물질은 대표적으로 집먼지 진드기, 동물, 곰팡이, 꽃가루가 있다.

집먼지 진드기는 가장 흔한 원인 알레르겐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고, 주로 먼지 속이나 천으로 된 곳에 많이 서식한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진드기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므로 이 시기에 천식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난방을 하는 시기가 되면 진드기의 배설물이 건조되고 부서져 미세먼지로 변해 알레르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렇듯 집먼지 진드기는 대부분 일 년 내내 증상을 일으킨다. 곰팡이는 습한 곳에 주로 서식하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동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 알레르기는 동물 털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물의 비듬, 타액, 눈물, 오줌, 대변 등 여러 종류의 물질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꽃가루는 계절에 따라 원인이 되는 꽃가루가 다르다. 봄에는 나무 꽃가루, 늦봄에서 초여름에는 잔디 꽃가루, 가을에는 잡초 꽃가루가 날리므로 어떤 꽃가루가 원인이 되는지에 따라 증상이 발생하는 시기가 달라진다.

이외에도 아스피린과 같은 소염진통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드물게는 식품이나 약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직업과 관련하여 이소시아네이트나 나무 분진 등 다양한 물질이 원인이 되어 천식이 유발될 수 있다.

치료방법

천식 치료는 천식 원인이나 악화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관리를 하면서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천식 환자가 호흡곤란이 왔을 때, 입에 기구를 대고 후~하고 들이마시고 나면 진정이 되는 장면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 증상완화제인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다.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하여 간혹 다른 약 없이 이 약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경우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이 더 심해지고, 내성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필요할 때는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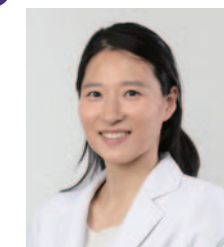
천식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약제는 흡입용 증상조절제이다. 흡입용 증상조절제는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증상이 없다고 하여 기관지 염증이 다 치료된 것은 아니므로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일정기간 더 흡입 증상조절제를 사용해야 하며, 의사와 상의하여 흡입제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생물학제제의 주사치료제도 사용이 되며 효과가 매우 좋은 편이다. 하지만 비용이 비싼 약제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약물 치료 외에 알레르기 원인 회피가 불가능 한 경우 근본적인 치료로 면역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생활치료

천식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생활 치료만으로 기관지 염증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통해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관리다. 천식을 악화시키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규칙적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최길순 교수 | 알레르기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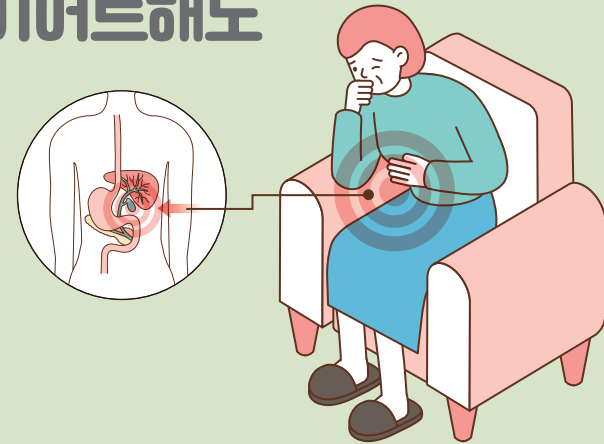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천식 및 비염 / 아토피 피부염 / 만성 두드러기 /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 호산구 관련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외래

고기 너무 좋아해도, 극한 다이어트해도 담석증 부른다

 이정욱 교수 · 간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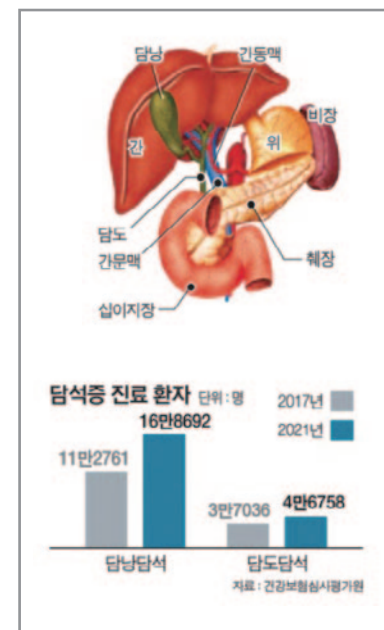
50대 여성 A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담석증이라는 진단을 듣고 깜짝 놀랐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외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연령의 남성 B씨는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담석증 진단을 받았다.

● 담석이란

담석은 담낭(쓸개) 및 담도(혹은 담관: 담즙이 흐르는 길)에 생긴 돌을 뜻한다. 이 같은 담석증은 대부분 무증상이나 우연히 발견되거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심코 방치했다가는 암이 발병할 수도 있다.

담석의 발생 위치에 따라 담낭담석, 담도담석이라고 한다. 인체의 간에서는 음식 소화를 돕는 담즙을 만들고, 이는 담낭에 저장된다. 그 담즙이 비정상적으로 돌처럼 굳어지고 쌓이는 것이 담석이다.

담석은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흑색, 갈색) 담석으로 나뉘는데, 콜레스테롤 담석이 대부분(80% 가량)을 차지한다. 담즙 내 콜레스테롤의 과포화로 결정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뭉쳐지는 것이다. 담석은 주변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패혈증까지 초래할 수 있다. 담낭암·담도암으로 발전할 위험성도 증가한다. 또한 담석증은 재발이 잦아 관리가 중요하다.



● 유병률

40세 이후,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유병률이 크게 높아진다. 비만과 고지혈증,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습관, 대사증후군, 간경화, 출혈성 빈혈 등이 위험인자로 꼽힌다. 여성의 경우 다이어트 등에 따른 급격한 체중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지방 섭취를 급격히 줄이면 담즙 내 콜레스테롤 양의 변화와 담낭 운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담석 증상

주요 증상은 소화불량, 헛배부름, 설사, 구토 등이 흔하지만 통증이나 황달,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담관 폐색(막힘)으로 인해 마치 산통처럼 극심한 복통이 생긴다. 하지만 폐색을 동반하지 않는 대부분(80% 가량)은 증상이 없게 된다.

● 치료 방법

담석이 있지만 크기가 작고 무증상이거나 정상적 기능의 담낭은 1년에 한 번 복부초음파로 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증상이 있거나, 담낭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3cm 이상의 큰 담석, 1cm 이상의 담낭용종과 동반된 경우, 석회화 담낭 등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도담석의 경우, 과거에 담관을 절개해 없앴으나 근래에는 절개없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로 제거할 수 있다.

담낭을 절제하면 수술 후 1년 정도는 고지방식 등을 한 후에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증후군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점차 호전되며 대부분 약물로 조절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담낭 절제 후 장기적으로 대사증후군 등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수술 외 방법으로는 '우루사'로 알려진 'UDCA'를 투여하는 것이 있다. 이는 담석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용해시키고,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의 핵화를 막아주는 것이다. 또 담낭 기능이 잘 보존되고 방사성 투과성이 1cm 이하인 담낭담석은 완전 용해가 2년 이내 50~60%까지 가능하다.

● 주의해야 할 생활습관

콜레스테롤, 지방,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콜레스테롤 담석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는 반면 불포화지방, 식이섬유, 비타민C, 갈슘 등은 그 위험도를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고콜레스테롤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비타민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무리한 다이어트나 급격한 체중 증가를 피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이정욱 교수 | 간내과

전문진료분야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시술	외래	시술	외래
오후	시술	시술		시술	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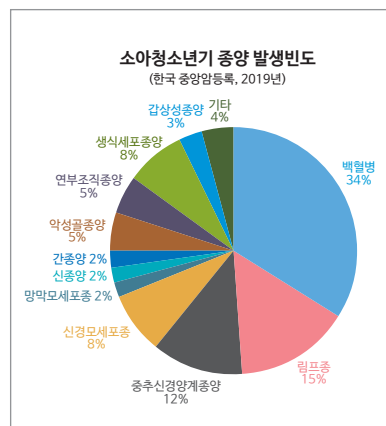
부모 관심이 소아암을 조기발견, 소아암 의심 증상은

 **공성김** 교수 · 소아청소년과



소아암은 매년 1,000여 명이 새로 진단을 받는다. 성인 암과 소아암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성인에서 주로 나타나는 갑상선암·폐암·유방암 등과 달리 소아에서는 발생률이 낮은 암들이다. 소아기에 많이 나타나는 암들은 백혈병·림프종·뇌종양으로 성인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암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아기에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암이 많고 이름도 생소한 경우가 많다.

● 소아암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25만 명의 암환자가 진단되었다. 그 중에 소아청소년은 926명으로 전체 암의 약 0.5% 이하이다. 소아암은 매년 1,000명 정도가 진단되어 왔으며, 최근 인구저하로 900여명이 매년 진단되고 있다.

소아청소년암은 백혈병이 약 1/3로 가장 많아 매년 전국에서 300여명이 진단된다. 이어서 림프종·뇌종양이 10% 이상을 차지하여 매년 1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진단되고 있다. 그 외에 복부에 주로 발생하는 신경모세포종·간종양·신종양·생식세포종양이 있고 뼈나 연부조직에 생기는 골종양·연부

조직종양 및 눈에 발생하는 망막모세포종양 등이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종양들이다.

● 발생원인

흔히 암이라고 부르는 악성 종양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우리 몸에서 세포분열을 계속하는 미성숙 세포에 여러 개의 돌연변이가 누적되어 발생한다. 누적된 돌연변이들은 정상적인 세포로 분화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서 계속 증식하게 된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환경적인 여러 물질 때문에 발생되며, 이런 요소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방사선·벤젠과 같은 발암물질, 항암제 등 세포독성 물질들과 일부 바이러스 등이 있다.

우리 몸에는 돌연변이를 고치는 암 억제 유전자가 많이 있다. 그러나 암 억제 유전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돌연변이의 발생을 막지 못해 암에 취약하다. 하지만 명확한 선행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률은 선진국·후진국 모두 비슷하다. 이는 전 지구적인 여러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성인 암과 소아암 차이

성인 암과 소아암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종양의 종류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성인에서 흔한 암은 갑상선암·폐암·위암·대장암·유방암·전립선암·간암 등이 있다. 대부분 소아 발생률이 낮은 암들이다. 소아기

에 흔한 암 중에서 백혈병·림프종·뇌종양처럼 성인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암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아기에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암이 많고 그 이름이 생소한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위암·대장암·유방암·갑상선암 등 대부분의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이를 대비해 초음파와 내시경 등으로 조기검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암 발생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조기검진과 조기발견이 어려워 대부분 종양이 커진 후에 발견하게 된다.

● 조기발견

소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암 건강검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암의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의심하는 것이다. 우선 성인과 소아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림프종의 증상은 1-2주 이상 지속되는 발열·명·체중감소·경부림프절 비대·팔다리 등 비특이적으로 아픈 뼈나 관절통 등이 있으며, 뇌종양의 경우는 지속적인 두통·구역·구토·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이런 경우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증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동공이 흰색으로 보이는 경우, 몸의 어디든 작은 덩어리가 만져지며 커지는 경우, 배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

몸의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붓는 경우 등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인해 병원을 늦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 치료

소아암은 종류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다. 백혈병의 경우 주로 항암화학요법이라 불리는 항암치료를 하게 되고 일부 고위험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 그 외 덩어리가 있는 종양들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항암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주변 조직으로 침윤이 있는 경우 방사선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 재발률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흔한 급성림프모구 백혈병의 경우, 평균적으로 재발률은 약 20% 가량이다. 고형암의 경우 완전절제로 재발률은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진행된 병기의 환자의 경우는 재발률이 높다.

● 민간요법

환자를 치료하다보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민간요법을 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아이가 견딜까 하는 걱정에서, 비타민 치료나 면역을 높여준다는 민간요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기지 못해 이미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을 증강시키는 민간요법도 도움이 될 수 없다. 



공성김 교수 | 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분야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젊은 층 유방암 발병 증가” 여성암 1위 유방암

정성의 교수 · 유방외과



국내 여성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은 ‘유방암’이다. 특히 50세 이전에 발생하는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40대 이하의 유방암 환자의 비율은 이미 서구의 2배에 해당한다. 늦은 출산, 빠른 초경, 모유수유 감소 등을 원인으로 유방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유방암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유선과 유관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암을 유방암이라고 한다. 악성종양이라고도 하는 암은 돌연변이로 크기가 커지고, 다른 장기로 퍼지는 전이를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혹을 말한다.

■ 젊은 유방암 원인

유방암은 유전, 여성호르몬, 방사선 노출, 고지방식이, 술,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50세 이전에 발생하는 유방암을 젊은 유방암이라고 하며 그 원인으로 늦은 출산, 빠른 초경, 모유수유 감소, 고지방식이, 피임약 복용 등이 있다. 한국은 50대 이하 유방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40대 이하의 유방암 환자의 비율을 보면 13%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서구의 2배 정도다.

■ 젊은 유방암 환자의 예후

안타깝지만 젊을수록 유방암의 예후는 나쁘다. 40대 보다는 30대가, 그보다는 20대가 예후가 좋지 않다. 젊은 환자는 검진을 받지 않아 병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나쁜 예후를 가지는 호르몬수용체가 없거나 HER2 과발현이 있는 타입의

유방암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르몬수용체가 없거나 HER2 과발현이 있는 유방암 내에서는 연령에 따른 예후의 차이는 없다. 오히려 호르몬수용체 양성, HER2 과발현이 없는 유방암에서는 젊을수록 예후가 나쁘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난소억제주사를 추가로 투여하여 예후를 개선시키고 있다.

■ 여성호르몬

여성호르몬은 여성성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유방에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다.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으로 인한 장기간의 에스트로겐 노출은 유방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고, 경구용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또한 유방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 검사 시기

유방암 학회에서는 30세 이상에서는 매월 자가 검진, 35세 이상에서는 2년마다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40세 이상에서는 1~2년마다 임상진찰과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가족력이 있어 유방암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이보다 이른 시기부터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자가 검진은 월경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이 끝난 후 3~4일경, 월경이 없는 여성의 경우 매달 하루씩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 자가 검진 방법

검진 방법은 거울 앞에서 편안하게 팔을 내리고 양쪽 유방을 비교한다. 유두나 피부의 함몰부위는 없는지, 돌출된 곳은 없는지, 피부색 등을 관찰한다. 양팔을 들어 올려서 확인하고, 양손

을 골반에 대고 앞으로 숙인 상태로 관찰한다.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해서 유방을 누르면서 만져본다. 원심을 그려가면서 해도 되고, 지그재그로 해도 된다. 양측 유방 전체를 꼼꼼하게 눌러보며 만져보고, 겨드랑이도 만져서 확인을 한다. 유두에 분비물이 나오지는 않는지 부드럽게 유두를 짜서 확인한다. 동일한 방법을 누워서도 시행해본다.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붉은색의 유두분비물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유방 양성종양

양성혹은 착한혹을 이야기 한다. 양성종양은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나, 종류에 따라서는 양성혹이라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 크기가 커지고 모양이 변하는 양성혹은 수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과 연관될 수 있는 혹은 양성이라도 수술해야 한다.

제거하는 방법에는 유방종양절제 수술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맘모톰으로 알고 있는 진공보조유방흡입절제술이 있다. 이 방법 둘 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며, 양성혹을 제거하면서 조직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 유방 보존

유방암의 범위에 따라 유방보존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방암의 조기발견은 중요하다. 작을 때 수술하게 되면 유방을 보존할 수 있고, 항암과 같은 힘든 보조치료도 피할 수 있다. 범위가 넓어 전절제를 하더라도 피부와 유두를 보존하고 재건을 통해 유방을 다시 만드는 수술이 널리 시행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하여 그 흉터도 더 작게 만드는 수술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 생존률

1~2기의 초기 유방암은 5년 생존율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3기는 70%, 전이가 함께 있는 4기의 경우에는 30% 정도다. 그래서 유방암의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유방암이면 좋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 또한 호전율이 높다.

■ 유방암 수술 후 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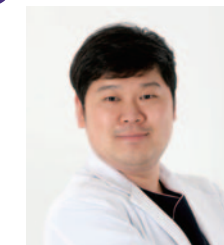
유방암 수술 후 임신에 대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유방암의 재발이 2년 내에 많기 때문에 2년이 지난 후에 임신할 것을 추천한다. 항암과 표적을 한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임신하는 것이 태아의 기형, 자연유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약물을 중단하고 임신해야 태아에게 안전하다. 임신 중에는 타목시펜을 복용하면 안 된다.

‘임신이 유방암의 예후에 나쁘지는 않을까’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최근에는 ‘임신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 중간에 치료를 중단해야하므로 임신이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가임기의 젊은 여성의 경우, 유방암으로 진단될 때부터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난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항암제 투여동안 난소억제제의 투여, 배아 또는 난자의 동결 등이 치료 시작 전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



정성의 교수 | 유방외과
전문진료분야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스마트폰이 부른 거북목증후군

 김도연 교수 · 신경외과



일반적으로 목디스크는 중년층 환자가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최근에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기기 이용의 잘못된 자세가 장시간 축적되면서 거북목(일자목) 증후군이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거북목과 목디스크

거북목과 목디스크는 아주 큰 관련이 있다. 거북목이 있는 분들은 목뼈와 목뼈 사이의 물렁뼈인 목디스크를 받치는 저항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목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몇 배는 높아진다. 모든 목디스크 환자가 거북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북목은 확실한 목디스크의 유발인자다.

거북목 구별방법

병원에서 x-ray를 찍으면 바로 알 수 있다. 또한 평상시에 귀와 어깨를 연결한 선이 어깨보다 확연히 많이

나와 있거나, 의식하지 않은 자세가 턱이 앞으로 굽어 있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다.

목디스크 증상

가장 많은 증상은 뒷목의 통증이다. 그 외로는 양쪽 또는 한쪽 어깨의 통증, 목디스크가 신경뿌리를 누르는 경우에는 팔 또는 손가락 쪽으로 저림 증상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도 두통이나 날개죽지쪽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자가진단

진료시 의사들이 하는 검사인 'Spurling test 검사법'을 자가로도 해볼 수 있다. 목을 뒤로 젖히고 한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 어깨나 팔 저림이 생긴다면 목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

치료

목디스크가 있다고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디스크의 정도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치료 방향은 아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중간 정도의 일반적인 목디스크 환자의 경우, 약물치료를 해 볼 수 있다. 약물치료만으로도 환자 대부분이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다. 이때 물리치료와 운동 등의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

약 2-3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기간을 두고 치료해도 증상이 악화된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부위 수술이라는 것은 탈출된 디스크로 악화된 신경 부위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주사해서 염증이 심한 신경에 염증을 빼주는 주사다. 이때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병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거나, 앞서 말한 마비 등의 중대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수술을 고려한다.

재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만

한 경우에는 재발이 흔하다. 따라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운동 및 자세 유지와 같은 목관리를 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중요하다. 디스크수술은 탈출된 디스크를 비롯해 병변의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 목디스크가 재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술 후 위·아래 부위에 새로운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생활 치료

스마트폰은 고개를 숙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어 눈높이에서 봐야한다. 컴퓨터의 모니터도 눈높이 또는 눈높이보다 높은 정도로 배치해야 한다. 모든 생활에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목을 약간 젖혀준다는 느낌으로 신전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

배게가 너무 높으면 목을 숙이게 만들기 때문에 높은 배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누웠을 때 목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뒤로 젖혀져야 한다. 수면 자세는 똑바로 자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옆으로 자야한다면 어깨와 목을 충분히 받칠 수 있는 높이의 배개를 사용해야 한다. 너무 높거나 낮아서 목이 꺾이게 만들면 안 된다. 



김도연 교수 | 신경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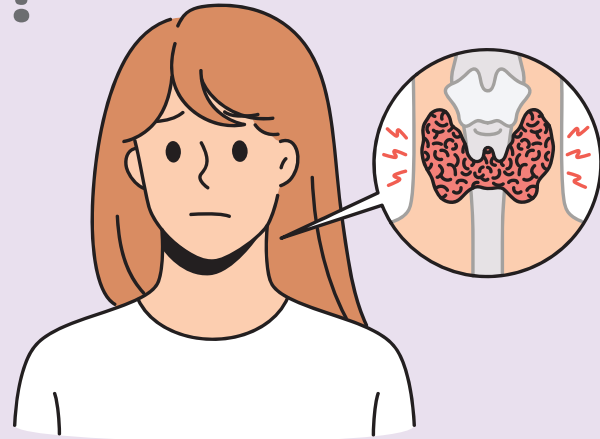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 협착증 / 전방전위증 / 척추종양 / 척추변형 / 두부외상 / 척추외상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갑상선암은 무조건 수술해야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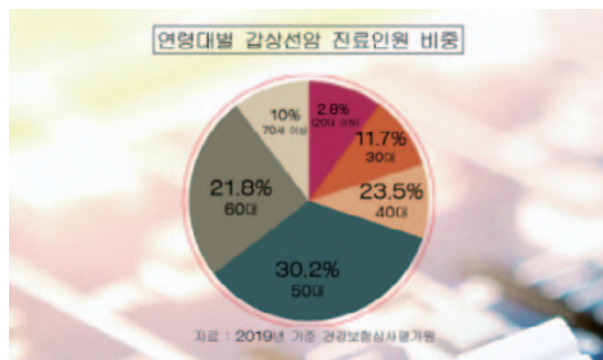
 **이지은** 교수 · 두경부갑상선내분비외과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으로 '갑상선암'을 꼽을 수 있다. 암 발병률 상위에 속하지만, 갑상선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갑상선 유두암은 진행속도가 느리고 치료 예후도 좋은 편이어서 '착한암'으로 불린다. 하지만 갑상선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된 후 발견되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50% 정도로 떨어진다.

갑상선암

우리나라의 갑상선 암 환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50대다. 그리고 전체 갑상선 암 진단 환자 중 여성이 80% 이상이다. 여성 발병률이 높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된다.



갑상선 검사의 기본은 초음파와 갑상선 기능검사다. 건강검진에서 흔히 시행하는 경부초음파 검사에 갑상선과 주변 림프절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갑상선 기능검사는 피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갑상선 초음파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결절이 있다면 세침흡인세포 검사 또는 중심바늘 생검을 시행한다.

미만성 갑상선질환

미만성 갑상선 질환이라는 말은 갑상선 한 부분에 국한된 질환이 아닌 갑상선 전반에 걸쳐 발견된 이상 소견이다. 앞서 사연에서 초음파의 '불균질 에코 실질 음영'이라는 결과도 미만성 갑상선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다.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보다 적게 생산해 내는 것으로 대사량이 감소하고, 기능항진증은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의 과다 생산으로 대사량이 정상보다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두 질환 모두 자가면역성 질환이 원인이 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일시적인 염증으로 증상에 대한 치료 후 정상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원인은 하시모토병과 같은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으로 주로 여성에서 발생하며 호발 연령은 30-50세이다. 이는 갑상선 호르몬의 복용으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하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이다. 그레이브스병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20-50세의 여성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갑상선 질환보다 이른 나이에 진단된다. 치료법은 항갑상선제, 방사선요오드치료, 수술이 있으며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선택한다.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갑상선기능항진증 차이점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신체의 대사량이 감소되어 체중 증가, 식욕 감소, 심박 수 감소, 변비, 피로, 우울감, 기억력 감퇴, 부종, 땀이 잘 안 나고 추위를 많이 타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대사량 증가로 인해 체중 감소, 식욕 증가, 땀이 많이 나고 더위를 많이 타며, 심박 수가 증가하여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설사, 불안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불면증, 손끝 미세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갑상선암 증상

갑상선 결절로 외래를 방문하는 95%의 환자들은 증상이 없고, 건강검진 초음파검사에서 갑상선 결절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갑상선 암의 크기가 크다면 목 앞부분에 돌출되어 단단하게 만져지는 혹이 있든지, 주변 장기를 압박해서 숨쉬기가 힘들거나 음식을 삼키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암의 위치에 따라서 갑상선 뒤쪽의 후두신경을 침범하여 쉼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만약 갑상선 암의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 측경부의 종물이 촉진될 수 있다.

갑상선암 발병유형

갑상선 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95% 이상이 분화성 갑상선암으로 예후가 좋은 유두암과 여포암이다. 갑상선 수질암과 유두암의 일부 케이스에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

로 유전적 요인이 있다. 그리고 방사선 노출이 갑상선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방사선량이 적은 x-ray 촬영 등은 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경부의 방사선 조사력이 있는 경우, 갑상선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을 권고한다.

무조건 수술해야하나

과거에는 갑상선 암이 진단되면 무조건 수술을 추천 하였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환자가 고령이라든지, 수술이 어려운 기저질환이 있거나 저위험도의 갑상선 암으로 보일 경우 수술 이외에 '적극적 감시요법'을 권고해 볼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다.

적극적 감시요법

적극적 감시요법은 수술 없이 초음파로 3-6개월 주기별 결절에 대한 면밀한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감시요법은 모든 갑상선암에 적용할 수 없다. 주변 장기나 갑상선 피막 침범이 관찰되지 않고 후두신경이나 기도과 인접하지 않은 위치의 1cm 이하의 단일 병변이며 림프절이나 원격 전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극적 감시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관찰 기간 동안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주변 장기로의 침윤, 림프절 전이 등이 발견되는 경우 적극적인 수술적 중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로봇수술

갑상선 로봇수술은 다빈치로봇의 국내 도입 이후 기존의 내시경수술에 적용시켜 발전한 것이다. 전경부에 흉터를 남길 수 있는 기존의 절개수술법과 달리, 흉터가 목 앞쪽에 남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다. 중년 여성에 호발하는 갑상선암의 특징 때문에 갑상선 로봇수술은 수요가 많다. 로봇수술은 갑상선과 주변 구조물을 10배 확대된 상으로 볼 수 있고, 로봇 팔이 미세 손 떨림을 보정해서 조금 더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액와 접근법과 BABA라고 불리는 양측 겨드랑이 유륜접근법이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경구강으로 접근하여 갑상선 절제술을 하는 방법도 도입되었다.

로봇수술과 일반 갑상선 수술 비교

갑상선 로봇수술은 비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고가의 의료기술로, 입원 및 투약비용 등을 제외한 수술비용만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고가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비가 있는 환자들이 주로 선택한다. 로봇수술이 절개수술에 비해 수술 자세를 잡는 시간, 기구와 로봇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로봇수술에 익숙한 집도의의 기준으로 실제 수술시간과 입원기간은 기존의 절개수술과 큰 차이는 없다.

합병증

갑상선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은 출혈, 부갑상선 기능저하와 후두신경 손상이다. 갑상선은 주요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 경부의 한 중앙에 위치하며 작은 혈관들이 둘러싸고 있는 장기이다. 수술 후 출혈이 생길 수 있어 수술 중이나 수술 당일 출혈에 대한 징후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갑상선에 인접한 부갑상선이 일시적·영구적인 기능저하가 생길 수 있다. 부갑상선은 혈중 칼슘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부갑상선 기능저하의 대부분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나 전절제 수술 후 손발이 저리거나 굳는 느낌이 든다면 칼슘 보충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게 된다.

호르몬약

갑상선 전절제술을 한 환자는 갑상선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한다. 수술 다음날 아침 식전 공복상태에 갑상선 호르몬 약을 1-

2알정도 복용하게 된다. 갑상선 한쪽 엽만 절제한 경우에는 수술 후 잔존 갑상선의 기능에 따라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림프절 전이나 주변 장기로의 침윤이 있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치를 억제하는 것이 재발률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제 복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갑상선 질환 후 임신

갑상선 질환에 앓고 있어도 임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임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기능저하증이 있는 여성은 의사의 진료를 받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적정 레벨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갑상선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신을 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의 소모가 많아지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갑상선암 수술 후 목소리 변화

모두는 아니지만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가 3-10% 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은 성대를 둘러싼 연골과 기도 앞쪽에 위치한 장기로, 성대로 들어가는 되돌이후두신경과 상후두신경이 수술 시 드물게 손상되기도 한다. 신경 손상의 증상으로는 쉼 목소리, 사례 걸림, 고음 장애와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편한 것이다.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 개월 이내에 음성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암의 침윤으로 인한 신경의 손상인 경우에는 쉼 목소리와 사례 걸림이 지속될 수 있다. 

이지은 교수 | 두경부갑상선내분비외과

전문진료분야
갑상선암 / 갑상선질환 / 부갑상선질환 / 로봇갑상선수술 / 갑상선최소절개수술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안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플루엔자란?

- ✓ 흔히 **독감**으로 불림
 - **감염경로**: 주로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한 사람 간 전파
 - **잠복기**: 1일~4일 (평균 2일)
 - **주요증상**: 갑작스러운 고열(38℃ 이상) 호흡기 질환(기침, 인후통 등),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

유행주의보란?

- ✓ 지역사회 유행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유행판단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의보 발령'**
- ✓ 올해는 **9월 16일(금)에 주의보 발령**



달라지는 점

- ✓ 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의심증상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급여 적용
- <고위험군>**
만 2주 이상 신생아~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등 기저질환자

4대 예방수칙

- ✓ 올바른 손씻기
- ✓ 기침 예절 지키기
-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 접종시기 등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 및 『표본감시 소식지』에서 확인하세요!

감염병누리집 www.kdca.go.kr/npt

가고, 오는 해의 사이길 시약산구덕산



노경만산·여행작가

구
덕
산

565m

〈서쪽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 허공에 부서져 돌아 오는……〉 가수 이승철의 서쪽하늘이라는 노래다. 문득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지는 날이 찾아오곤 한다. 영화 청연의 화면에 오버랩 되어 왠지 감당키 힘든 슬픔을 기억나게 하고, 또 먹먹한 마음으로 위로를 건네기도 하는 가사와 음률이 절절하게 와 닿는 노래다. 오늘 서쪽하늘이 그 노래를 닮은 날이다. 역수로 쏟아지는 빗줄기 속으로의 마지막 비행을 기대하게 하는…….

밤부터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는 날이다. 이 비가 지나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는 예보도 함께였는데, 그것은 곧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가는 해와 오는 해의 사이에 한번쯤 찾기에 좋은 산이 시약산과 구덕산이다. 해넘이와 해맞이를 함께 하기에 정말 좋은 산이다.

어쩌면 사이에 있어 더 좋은

시약산(510m)과 구덕산(565m)은 경계에 있는 산이다. 서구와 사하구와 사상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동쪽과 서쪽의 사이에 있는 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즈음 해넘이와 해맞이를 함께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산이다.

약초를 키우는 산과 인간이 갖추어야 할 아홉 가지 덕을 품은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약산과 구덕산. 그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의 산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치 서로 지척에 있다. 아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모양새다. 인근의 승학산으로 가는 길에 어쩌다 한번쯤 들르기도 하는 길 언저리에 있는, 꽃마을 프로방스와 승학산 사이에 있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그 존재를 주목받지 못하는 산이기도 하다.

해넘이와 해맞이 사진을 찍기 위해 며칠 내내 산을 올랐으나 쉬이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 늘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렸고 오늘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 몰려오는 구름떼 사이로 운이 좋아 잠시라도 그 모습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산을 오른다.

대티고개에서 출발한다. 버스정류장에서 대신동 방향으로 잠시 걷





다가 계단을 오르면 천마다리에서 천마산을 출발한 <서구중단트레킹숲길>과 만난다. 이후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골목으로 난 길을 찾아 오르면 된다. 길을 찾는 중 잠시 골목골목을 둘러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다. 골목을 지나 이정표와 산행 안내도가 있는 곳에서 다시 왼쪽으로 걷다가 오르막과 노란색 천막의 산불감시초소를 만나면 산행의 시작이다. 안내도에는 시약산까지 50분이 소요된다고 적혀있으나 1시간30분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시약산 정상까지 계속 숨이 찰만큼 오르막길이 이어진다.

첫 봉우리에 도착하면 전망바위가 있다. 동북쪽으로 시원하게 전망이 트인 바위에 앉아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면 산 아래로 서구지역일대와 바다까지 아우르는 시가지의 풍경이 아찔하게 내려다보인다. 전망바위에서 잠시 내리막이었다가 다시 가파른 오르막이 정상부까지 계속된다. 그 오르막을 꾸준히 오르다보면 일렬로 늘어선 대나무 너머로 기상관측소의 둥근 지붕이 보인다. 시약산 꼭대기에 도착했다.

날이 좋다면 낙동강 하구 너머 서쪽하늘로 떨어지는 온통 붉은 해넘이를 볼 수 있는 시약산 정상이다. 좀 더 여유 있게

해넘이를 보려면 이어진 내리막길로 잠시만 내려가면 제법 자리가 넉넉한 바위로 된 전망터가 나온다. 바위에 걸터앉아 충분히 해넘이 풍경을 즐긴 후 아래로 길을 잡아 자갈마당을 지나 괴정동 방향으로 하산할 수도 있다.

야경 혹은 해맞이 그 어떤 것도 놓칠 수 없다

“황혼에 젖은 발로 시약산에 올랐더니 동네길 먼 어스름 내 님 모습 더 쓸쓸해 석양을 재촉하여 내 맘 먼저 내려가네”

시약산 정상석 곁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과연 오늘 내 딛는 발자국마다 황혼에 흠뻑 젖을 수 있을까. 행여나 그님의 모습이 홀연히 나타나 보일까 마음 졸이며 기다려 보기로 하지만, 야속하게도 해는 짙은 먹구름에 가려있다.

더불어 세찬 바람이 그 구름들을 데리고 빠르게 산을 오르고 있다. 날이 좋은 어떤 날엔 저물녘이나 새벽녘에 이곳에서 서면 틀림없이 붉게 물들어 떨어지거나 솟아오르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며칠간은 그런 기대를 접어야만 할 날씨가.

시약산 정상에서 기상관측소를 돌아 나오면 포장된 도로를 따라 항공무선표지소 건물이 있는 구덕산이 지척에 있다. 가는 길에 철쭉전망대와 시약정(오감충전전망대)에 들른다. 한창 나무마루 공사가 진행 중인 정자에 서면 커다란 얼굴바위(두 사람의 얼굴 모양을 닮아서 지어본 이름이다.)와 그 너머로 승학산과 구봉산 능선이 보인다.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구름 아래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는 도시의 풍경이 반짝반짝 펼쳐진다.

과연 야경 맛집이라 해도 좋을 만하다. 시약산에서도 구덕산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풍경이다. 구덕산 정상에서는 야경이 사방으로 조망되어 그 풍경이 더 좋다. 아마도 날이 좋으면 해맞이 풍경 역시 이만큼이나 환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하산은 포장된 도로를 따라 꽃마을 프로방스로 내려간다.

길옆 나뭇가지 사이로 사상구 쪽의 야경이 따라온다. 마을에 다다를 즈음 운이 좋으면 대문 앞에 쪼그려 앉은 통통하게 살찐 고양이 한 마리가 마중을 나올 수도 있다.

꽃마을에서 산행을 시작하면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해맞이나 해넘이 후에는 승학산으로의 산행을 이어갈 수도 있고, 괴정동이나 당리동 방향으로 하산할 수도 있다. 반대쪽에서 산행을 시작했다면 꽃마을 프로방스에서 엄광산과 구봉산을 넘어 민주공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잡아도 좋다.

비가 지나고 난 후 날이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해넘이와 해맞이 그 절정의 풍경이 기다려진다. 아시다시피 시약산과 구덕산은 가까운 곳에 있다. ♡



앞산



김희자 수필가

반쯤 눈을 감은 저녁이 오고 있다. 어둑한 산 그림자는 점점 길어져 마을로 다가서고 수척해진 겨울 산은 짐승처럼 엷드린 채 말이 없다. 저 산을 안 보고서야 무슨 낙으로 살까. 어머니께서 즐겨 드시는 생선과 나물로 조반을 차려 양증맞은 소반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손 흔들지 않아도 가는 세월 앞에서 구순이 넘은 어머니. 마루에 앉은 어머니는 밥술을 뜨면서도 시선이 밖으로 향한다.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는 유리 밖을 내다보는 것이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이다.

마주 보이는 앞산과 골목으로 다니는 관광객,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과 도로에 다니는 차량을 보는 것이 일과이다. 그중에서도 앞산을 보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일. 어쩌면 그것은 지루한 하루를 죽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순가락을 놓고 해 질 무렵의 앞산에 맘을 빼앗긴다. 서둘러 저무는 겨울 해거름 속에 말없이 앞산만 바라보고 있다. 잠시 넋을 놓고 있으니 업둥이 녀석이 짖어댄다.

어머니는 아직 식사 중이시다. 모든 만물은 마음의 모양에 따라 보인다고 했으니, 앞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왜 찬 겨울에도 마루에 나와 계시는지 알 수 있다.

마루에 앉아 시선만 열면 앞산이 마음 안에 들어선다. 그리움이 점점 짙어지는 시각. 낮도 밤도 아닌 저녁 거미가 내릴 즈음이다.

골목 가득 들리던 여행객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새들도 하늘 높이 날아갔다 제 자리를 찾는 시간이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오는 때이다.

돌아올 사람 없는 마당에 보얀 먼지만 날린다. 어머니께서 고향 집을 떠나지 않으시려는 것도 어쩌면 저 산 때문인지 모른다. 어스름 속의 산 그림자는 어찌 저리도 묵직한 것인지.

앞산이 늘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켜주기 때문일 것이다. 바람을 막아주고 풍경도 걸어주는 고마운 산이다. 사계절 풍경이 걸리는 앞산은 언제나 나의 정원이다. 한때 아버지 소유의 산이기도 해서 부자 같았다.

떨감으로 방을 테우던 시절,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앞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왔다. 이고 지고 온 떨감은 가족의 겨울밤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그 후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고 지금은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돈을 주지 않아도 눈으로 맘껏 소유할 수 있는 산이다. 나는 매일 침묵하며 자릴 지키는 앞산을

보며 성찰한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마음이 얼마만큼 담겨 있나 라며 되묻기도 한다.

산은 가만히 있는데 풍경이 되는 날이 있다. 자연현상이 절로 풍경을 그려낸다. 어느 날에는 산자락에 부채처럼 걸린 구름을 선물 받기도 하고, 새벽녘에 눈썹 같은 초승달을 만나기도 한다. 시선을 약간 우측으로 돌리면 육조문이 있고 여섯 부처의 얼굴 바위도 보여 경이롭다.

저 산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밋밋할까. 저 산이 딱 버티고 있어 마을이 존재한다. 맑은 날이나 색이 드러날 땐 산이 바로 앞에 다가왔고 흐린 날은 희미하게 다가섰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앞산 풍경은 장관이다. 마을과 앞산 사이에 흐르는 듯 내리는 빗줄기를 보고 있으면 눈이 즐겁다. 또한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걸어준다.

바위틈에 참꽃 벌절게 피는 봄이면 빠꾸기 울어대고, 산 벚꽃 지고 연록이 돌아나면 엽서 속의 풍경 같다. 여름은 푸르러서 시원하고 가을은 화려해서 곱디곱다. 여름날 푸른 옷을 입고 선 모습은 우직한 남성처럼 보인다.

가을날 짙푸른 하늘색이 펼쳐지는 새벽 정경은 시가 되어 황홀하다. 겨울날 짐승이 드러누운 듯 황량한 산은 들뜬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게 한다. 침묵하며 누워있는 겨울 산 풍경을 보는 새벽은 혼자 보기가 아까울 만큼 생경하다.

철 따라 색깔이 바뀌는 산을 날마다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이다. 앞산에 취한 것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다. 병풍처럼 펼쳐진 응봉산은 어릴 적 뒷마루에 걸터앉아 자주 보곤 했다.

고향 집의 안채를 개조하기 전에는 뒷마루가 있었다. 널빤지로 이은 뒷마루에 앉아 앞산 그림자를 보며 기다림을 배웠다. 몇 살쯤이었을까.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하는 법을 배웠다.

일을 하러 들로 나가시던 어머니는 밥을 지어놓으라며 보리쌀을 건네줬다. 고사리손으로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지었다. 밥이 다 되면 마루에 앉아 한길 바라보며 어머니를 기다렸다. 밭에 나간 어머니는 앞산 아래 어둠살이 내리면 마을 어귀로 들어섰다.

그때처럼 마루에 앉아서 해 질 무렵의 앞산을 보고 있다. 가시를 발라 어머니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올린다. 천천히 식사하시던 어머니께서 숟가락을 놓으시고 또 앞산을 보신다.

산 그림자 어느새 사라지고 앞산 자락에 어둠이 내린다. 저러다 곧 마을도 어둠에 잠기고 밤이 자리를 펼 것이다.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김진 지음 | 생명의말씀사 | 2018년 07월 30일

책소개

김진 원장은 MBTI를 뛰어넘는 한국형 진로검사 '옥타그노시스'를 개발했으며 이 책에는 내 아이가 어떤 성향유형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표를 압축한 '옥타그노시스(OCTAGNOSIS)' 성향유형 진단 테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각 성향유형마다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따른 답변을 체크해 합산한 총점을 통해 아이의 대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성향진단 테스트를 통해 내 아이의 성향유형을 파악했다면, 이제 2부에서 내 아이에게 해당하는 성향유형에 관한 설명을 참고해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아 주도록 한다. 각각의 성향유형에 대해 성향의 특징(Step 1), 재능과 직업(Step 2), 신앙교육법(Step 3), 학습법(Step 4), 해당 성향유형을 지닌 성경인물(Step 5)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와 부모인 자신에게 적용하면 된다. Step 1부터 Step 5까지 해당 성향에 대한 저자의 친절하고도 신뢰도 있는 설명을 읽어 가다 보면 아이와 부모 모두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또한 아이의 성향에 맞게 교육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각각의 성향유형별 부모 체크리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더해서 내 아이의 타고난 성향과 재능을 더욱 강화시켜 주거나 일부 연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내 아이를 위한 '추천 액티비티'가 제시되어 있다. [출처: 알라딘]

저자소개 | 김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계 교육컨설팅 회사인 포럼(FORUM)사에서 선진국의 교육컨설팅 시스템을 익혔다. 현재는 김진교육개발원 대표이자 DNA교육전문가로서 15년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에게 도움 되는 개인별 성향에 맞춘 진로컨설팅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컨설팅은 저자가 직접 8천명 한국인들을 1:1 대면 컨설팅하면서 얻은 실증 데이터와 진단자의 직관력, 경험의 총체적으로 결합돼 만들어진 진단검사 프로그램 'OCTAGNOSIS검사'를 기반으로 하며 8(OCTA)가지 사고력으로 15가지 성향유형을 진단하는(GNOSIS) 한국형 진로검사 프로그램이다. 저자는 이를 토대로 학생 및 일반 성인의 개인별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유형별 공부법과 교육법, 잠재적 가능성인 합격DNA 및 학과와 진로에 대한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예스24]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팀 켈러(Timothy Keller) 지음 | 윤종석 번역 | 두란노 | 2022년 11월 23일

책소개

미워하는 혹은 양갈음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가? 풀지 못한 채 영긴 관계, 응어리진 마음이 있는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서로를 비난하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화의를 느끼는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들려줄 설교를 고민하는 목회자나 예비 목회자인가? 혐오를 부추기는 극심한 분열과 배척, 양극화에 시달리는 시대, 만연한 원한과 복수 문화 속에서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독교 신앙의 심장, '용서'를 조명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수많은 저서와 설교를 통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한 팀 켈러 목사가, 현대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용서가 모든 사람의 삶에서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개괄한다. 누군가를 의미 있게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아주 힘들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과 복수심이 서서히 우리를 삼킨다. 그런데 타인을 온전히 용서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원과 도구를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 용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고, 도덕적 필연이며, 인간으로 산다는 의미의 정곡을 찌르는 기독교적 신념이다. 이 책에서 팀 켈러는 독자들에게 용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와 용서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함께 익히고 배울 것을 권한다. 어떤 단계를 밟아야 정의나 자신의 인간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전진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용서에 관한 흔한 오해들을 풀어 주고, 단순히 사회적,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서 비롯된 기독교적 용서의 참의미와 기원을 짚어 준다. 뼈를 깎는 듯한 용서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면서, 개개인의 삶의 현장과 인생을 직접 뒤바꾸는 듯이 현실적인 믿음의 행위로서의 용서를 알려 준다. [출처: 교보문고]

저자소개 | 팀 켈러 (Timothy Keller)

팀 켈러는 맨해튼을 비롯해 미국 뉴욕 세 군데 지역에서 약 6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리더머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의 설립 목사로, 그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자성으로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어 준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구도자와 회의론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팀 켈러는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만들어지고 집약되는 '도시 지역' 선교에 헌신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 이상 도시에 430개 교회의 개척을 도왔다. 2017년부터는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들의 도시 전도와 사역을 돕는 단체인 CTC(City to City)에서 섬기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버크넬대학교(Bucknell University), 고든콘웰신학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학했다. 1984년부터는 5년간 모교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강단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출처: 예스24]

유방, 갑상선외과 연수 보고

2022. 08. 17. ~ 2022. 11. 17.



양호바야르 아가페기독병원(몽골)

한국에서 의사연수를 시작하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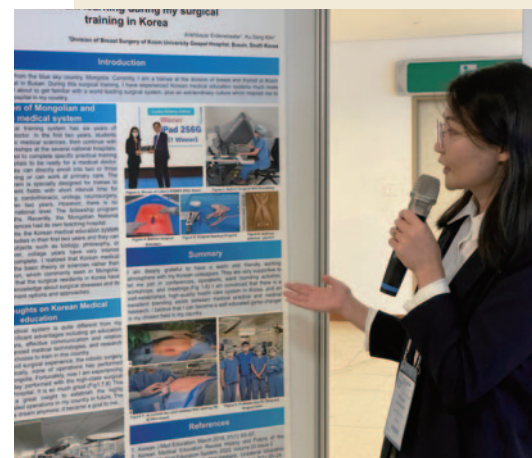
현재 몽골 외과 의사들의 업무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고품질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보조 물품들이 부족하며, 수술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몽골의 젊은 의사들은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있고, 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선진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큼니다.

아시아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개방적이고 몽골과 문화가 비슷하며 의료분야 및 의료진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몽골 의사들이 연수를 받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분야는 정밀하게 시스템화 되어있으며, 첨단의료기술과 품질 좋은 의료물품을 활용하여 수술과 치료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의료 연구 분야를 인정받은 한국에서 연수를 받는 것은 외과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틀림없기에 한국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의사연수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부산에 오기까지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초청장을 받고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며, 비자 발급을 위해 요청하는 여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입국 허가받기까지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서도 서류를 준비해야했기에 몽골에서부터 수시로 고신대병원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메일과 메시지 등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도움을 받아 부산에 8월 17일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보니 병원에서 모든 생필품과 기타 물품들을 준비해두셨습니다. 숙소와 병원 간의 거리도 걸어서 약 6분 정도이며 물품도 충분히 구비되어있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에서 온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숙소 외 식권 및 커피 쿠폰을 주시는 등 저를 위한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연수일정

부산 도착 이후 첫 월요일, 외과 교수님들께 연수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일은 당직, 주5회 외과 수술에 참여하였습니다. 일정에 맞추어 유방 초음파를 보거나 유방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효율적으로 연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기간동안 총 58건의 유방 수술 · 28건의 갑상선 수술 · 8건의 응급 수술 등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의 28건은 첨단의료기술로 진행하는 로봇 수술이었습니다. 외래 진료와 초음파 진료는 각각 12건 참여하였고, 3건의 수술에 참여하였습니다.

직접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연수생의 수술 참여 비율은 담당 지도교수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연수생과 소통하면서 연수 일정을 맞추면 보다 많은 기술을 접하고 연수기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다고 느낄 수 있는 3개월의 의사 연수 과정은 외과의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한층 더 성



장시켰으며, 한국 의료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많이 터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몽골에 돌아가 연수기간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도입하고 응용하고 싶습니다.

국제 및 학술대회에서의 경험

연수 기간 동안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6번의 행운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외과학술대회 중 제일 큰 『ACKSS-2022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 벽보발표 포스터를 2회 제출했으며, 참여 경험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연구해야하는지’, ‘어느 분야가 우수한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됐기에 전문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참여는 비용 부담이 커 참여 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번 연수를 통해 여러 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기뻐했습니다.

학술회의 참여 중 우연찮게 응모 당첨되어 학술대회 참여일정을 세우기까지, 학술대회의 준비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유방외과, 갑상선외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타 일정

가끔 수술 계획이 없는 날에는 몽골에서 접하기 힘든 최신 수술로봇인 ‘DaVinci Xi’를 만져보고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첨단의료기술을 틈틈이 접했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몽골의 병원에는 현재 로봇수술이 도입되지 않았으며, 전공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신대병원에서 경험한 전공의 회의 및 실습참여는 저의 기본 지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독감예방접종, 코로나 검사, 교통편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며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국제진료센터 일동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의사연수 과정을 끝맺으며

현재 몽골에는 1년에 400여명의 의과대학생이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나 그 중 소수만이 해외 연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몽골의 젊은 의사들은 최첨단 의료기술을 배우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저도 그들과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몽골의 젊은 의사들도 저처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통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초청해주시고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몽골 현지 병원의 수술·치료에서 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수술 계획이 없는 날에도 다른 과 수술을 참관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유방외과, 갑상선외과에도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연수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내 직원 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에서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암 사냥꾼

윤기영 교수·위장관외과

국내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암 발생 요인은 고령 인구 증가를 비롯해 유전인자, 식습관, 환경 오염, 각종 약물 등 실로 다양한 편입니다. 신규 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더불어 암에 걸려 생존할 확률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암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명실상부 ‘암 전문병원’입니다. 1978년 지방 최초로 암 센터 문을 열었다는 오랜 역사는 물론 뛰어난 실력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여전히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윤기영 교수(위장관외과) 역시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위암 수술의 권위자입니다.

만 시간의 노력

“저는 상부위장관 특히 위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진료합니다. 우리 고신대복음병원은 한강이남에서 암 수술을 많이하는 암 전문병원이라 위암 환자가 많은 편이에요. 병원 문턱을 넘기조차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던 장기려 박사의 신념 때문에 복음병원은 다른병원보다 더욱 사회 약자들에게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를 이어가던 윤 교수의 별명은 놀랍게도 ‘캔서 헌터’ 환자들이 붙여준 ‘암 사냥꾼’이라는 강렬한 이 별명은 어느새 그의 다른 이름이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의 명패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힘든 시간이었죠. 아마도 그때 암을 끝까지 추적해 끝장을보겠다는 마음이 지금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제게 두분의 스승이 계세요. 그분들은 암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는데, 한 분은 암을 다독이고 달래야 한다는 지론이었고, 다른 한 분은 끝까지 싸워 정복해야 한다는 쪽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암 사냥꾼이었지만, 요즘은 암을 달래야 한다던 선배 교수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 정복해야만 했던 암 세포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윤기영 교수는 한번 더 환자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물론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환자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복강경 위암 절제수술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전, 미국 마운티시나이 병원 복강경 외과와 뉴욕 코넬대 부속병원, 프랑스 파르퇴르 대학 복강경 센터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으니까요.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센터에서 복강경 수술만 주구장창 했어요. 제가 공과대학을 잠시 다녔던 터라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내기도 했죠.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것만 생각하며 연습하고 공부하면서 살았어요.”

칼을 대지 않고 할 수 있는 위암 수술이라니... 복강경 위암 절제 수술은 그야말로 신세계였고, 윤기영 교수가 쏟아낸 만 시간의 노력은 복강경 수술과 유문 보존 위절제술, 암환자의 영양치료 등 다방면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환자에게

“이제는 환자를 보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아픈 사람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보다 기본적인 사랑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마디 말이나, 한 번의 진료도 그렇습니다. 수술을 할 때도 의료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의사로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확실히 치료 효과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의사로서 믿음이 주는 의미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처한 상황이 같더라도 믿음이 있어 정신적으로 무장된 분을 치료해 보면 확실히 다르니까요.”

수영교회(담임목사 유연수) 안수집사로 섬기는 윤기영 교수는 ‘환자를 약자’라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서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인 본인 마음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제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 환자들은 바로 느낍니다. 특히 우리 병원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세

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다독이고,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킬 때 치료도 힘을 얻고 효과도 훨씬 나아집니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이 땅에 왔을 때보다 제가 떠날 때 1%라도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인 외과의로 살면서 저 스스로 조금 더 발전하고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상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테지만, 한없이 부족한 저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의사로, 교수로 살아가게 하심을 맡이죠.”

어떻게 환자를 대할 것인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은 윤기영 교수에게 계속 될 것입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장기려 박사를 바라보면서 그 정신과 자세를 배웠고,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을 치열하게 치료해온 윤기영 교수는 오늘도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복음병원에 있는 분들은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의사들도 자기가 잘나서 병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의술을 펼칠 수 있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이 땅에서 받은 것들을 환자들과 나누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지요. 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



위장관외과 윤기영 교수, 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 차기 회장 선출



윤기영 교수(위장관외과)가 8월 2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된 '2022 제8회 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는 병원 입원환자 중 적극적인 영양지원이 요구되는 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펴기로 하고 관심이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들이 모여 결성되었으며, 2001년 영남환자영양지원연구회로 발족하여 2013년 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윤기영 교수는 복강경 위암 절제술 감시임파절을 이용한 위암 부분 절제술, 유문 보존 위절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행 위암의 경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다합병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기영 교수는 2013년 EBS명의 '우리 곁의 명의 - 고신의대 암센터 편'에 출연, 지방을 대표하는 외과의사로서도 인정받은 바 있다.

[2022.08.25.]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고신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2주기 1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종합병원급 이상 총 994기관, 18개 수술을 대상으로 입원 진료분에 대해 평가했으며, 수술은 기존 14개 수술과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총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 수술이 포함됐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는 적정용법 및 용량을 지키지 않은 항생제 사용이 감염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술 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고신대병원은 대장수술, 담낭수술, 자궁적출술, 척추수술, 후두수술, 유방수술, 골절수술 분야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다.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의료서비스의 안전관리와 질 향상을 통해 환자중심의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2.08.31.]

추석 앞두고 유방암 환우와 함께한 '특별한 소통 콘서트 개최'



고신대병원이 주최하고 하니메디컬이 주관한 유방암 환우들을 위해 '명義와 함께하는 소통 콘서트'가 8월 31일 (수) 오후 2시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유방외과 김구상, 정성의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고 암 환우들로 구성된 출판사 아이북스의 필자 3인과 함께한 북토크 '암핑아웃 습관 편' 그리고 패널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 순서로 진행됐다. 소통콘서트 종료 후에는 고신대병원 교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합창단 성산파이어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성산파이어는 최근 열린 제9회 전국 골든에이지 합창경연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실력파 합창단이다. 이날 소통콘서트 현장에 참여한 입원중인 암환우 A씨는 "강의와 북토크 콘서트 합창단 공연까지 병원에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준 병원에 감사하다."면서 "오늘 보고 들은 내용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원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2022.09.02.]

제18회 내과 연수강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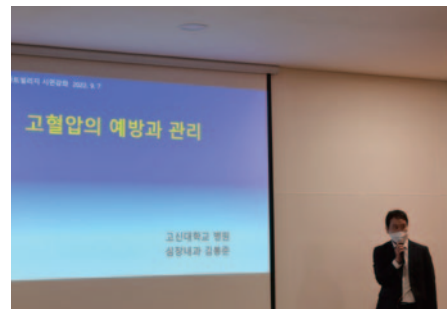


고신대병원이 지역 개원의들에게 내과 질환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18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9월 3일(토) 고신대병원 장기려 기념암센터에서 개최된 연수강좌는 완화된 방역지침으로 올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해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바 있다. 고신대병원 내과는 매년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진료실에서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최신 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수강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강좌는 총 3부로 나눠 ▲개원의를 위한 내과질환 최신지견 ▲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 ▲개원의 고수되기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연수강좌에 개최를 주관한 옥철호 주임교수(호흡기내과)는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등 내과 이외에도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코로나 치료 등 최신지견들이 공유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2.09.06.]

에코델타시티 입주민 대상 '고혈압 바로알기' 그룹테라피 개최



고신대병원은 9월 7일(수) 오후 3시 부산에코델타시티(EDC) 스마트빌리지웰니스센터에서 에코델타 입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 그룹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룹테라피 프로그램은 비바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웰니스센터에서 진행되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시티 입주민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고신대병원이 의료진을 지원하여 강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그룹테라피 주제는 고혈압으로 김봉준 교수가 고혈압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했다. 입주민 A씨는 "강의를 통해 주변에서 흔한 고혈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룹테라피 프로그램 이외에도 웰니스센터를 통해 입주민들은 풀무원식품과 연계된 맞춤형 식생활 프로그램, 제노플랜의 유전자 분석 키트, 부산지역 병의원과의 협업을 통한 비대면 협진 등을 제공받으며 고신대병원은 의료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2022.09.07.]

명절 앞두고 환자안전 라운딩 실시



고신대병원은 민족명절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 오전 '환자안전 리더십 라운딩'을 실시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라운딩을 직접 지도하며 병동 안전 상황을 챙겼다. 이번 '환자안전 리더십 라운딩'은 환자 중심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원내 환자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로 2번째로 시행되었다. QPS(Quality Patient Safety)실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병원장을 비롯해 간호부과·부장 등 병원 리더로 구성된 위원들이 병원을 순회하며 근무간호사들에게 정확한 환자확인 및 의료진 간 의사소통, 환자안전사고 예방교육 지도가 이뤄졌다.

환자안전 라운딩과 더불어 위원단은 병동을 방문하여 명절 때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입원생활 하는 환우들을 격려하고 낙상예방용 헤드기어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네트를 증정하며 환자들에게 낙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오경승 병원장은 "환자안전 리더십 라운딩을 통해 환자안전 의식을 높이고 진료과정 뿐만 아니라 시설과 환경,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주기적으로 라운딩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Focus View



오경승 병원장, 국민건강보험 부산 서부지사 1일 명예지사장 위촉



오경승 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서부지사 1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9월 15일 체험활동을 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서부지사(지사장 김안옥)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고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결재를 진행했으며, 민원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업무 처리와 활동을 진행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새삼 깨달았다.”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부산 서부지사 김안옥 지사장은 “10년 이상을 고신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가 함께 의사각지대를 다니며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15.]

위장관외과 김기현 교수,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 수상



9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열린 '2022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2022 International congress of KSMBs)'에서 고신대병원 위장관외과 김기현 교수(교신저자 서경원)와 박한수 전공의(교신저자 허정호)가 우수구연상(Oral Presentation Award)을 수상했다. 고신대병원은 UCLA와의 협력으로 비만 대사 수술 환자의 문화적·인종적 차이점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했으며, 향후 국내의 비만대사수술 치료 환자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도울 수 있는 결과를 발표했다. 고신대병원의대비만수술의 장점은 복강경 또는 로봇을 통해 수술을 실시하며, 수술 후에는 안전한 회복과 지속적인 체중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외과·내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과·안과·가정 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와의 다학제 진료를 통해 대사이환환자 치료에 체계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2022.09.29.]

제14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서 의료관광 리더병원 자리매김



제14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BIMTC)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양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13개국 100개 업체가 참가하며, 의료관광관·의료체험관·의료산업관·관광상품관 등 다채로운 의료체험존이 마련됐다. 고신대병원은 이번 행사에서 아랍, 몽골, 베트남, 캐나다, 카자흐스탄 등 7개국의 주요의료기관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부울경을 대표하는 의료관광 전문병원 위상을 알렸다. 이날 오후에는 몽골 바이어 10여명이 고신대병원 팸투어를 하며 고신대병원의 최신 방사선 치료 장비인 트루빔 sbx와 송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자연경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10월 1일 개최된 '부산 명의 초청 건강강좌'에서 소화기내과 박무인 교수가 '위암의 원인과 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초창기 시절부터 부산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동행해왔다”면서 “코로나 팬더믹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올해는 서구의료관광특구 지정과 바이어들이 방문하면서 의료관광이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Focus View



유전체기반 질병예측 위한 '환경성 질환 연구 심포지엄' 개최



환경성 질환 연구 심포지엄이 "유전체 분석 기반 환경성 질환 민감성 예측기술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10월 7일 고신대병원 장기려기념 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고신대복음병원 옥철호·김희규 교수팀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과 함께 환경부가 발주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인 총 연구비 60억 원의 대형과제를 수주했으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옥철호·김희규 교수팀은 '유전체 분석 기반 환경성질환 민감성 예측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환경성질환 및 관련 유해인자에 의해 일어나는 생활습관병, 환경질환을 대상으로 유전적 경로 및 관련 기능을 규명하고 질병예측 진단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려대와 NHNcloud와 사업단을 구성해 5대 환경성질환인 아토피·천식·치매·부정맥·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고신대병원은 5대 환경성질환 중 아토피, 천식과 환경성 질환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정보센터와 함께 700명의 취약계층, 다문화,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22.10.11.]

임상표준진료지침 개발로 적정진료 선도

- 해당 질환별 지침 개발 시상, 환자안전 자율보고 포상금 시상도 함께



고신대병원은 의료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해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을 개발하고 각 부문별 시상을 10월 17일 전교직원 조회사간에서 진행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환자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포상금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매년 표준진료지침을 통해 적정진료를 선도하고 있는 고신대병원은 79개의 질환에 대해 CP를 개발하였고, 2022년에도 이미 15개를 개발했으며 추가적으로 환자중심을 위한 질환별·수술별 치료에 대해 추가로 CP를 개발할 예정이다. 시상에는 세부적으로 내시경을 통한 부비동수술 등 3건의 진료지침을 개발한 최동규 전공의가 대상을 수상했다. 환자안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에서는 보고건수가 가장 많은 응급실과 개선활동의 실제적인 시행율이 높은 내시경실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10.17.]

2022년 호스피스 의 날 캠페인 개최



고신대병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주최로 '2022년 호스피스의 날 캠페인'을 개최했다. '호스피스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갖춘 병원들은 10월 한 달간 다양한 캠페인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고신대병원 장기려암센터 중앙로비에서 진행됐으며, 오경승 병원장을 비롯해 혈액종양내과 교수진과 호스피스병동 간호사가 한자리에 모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인식개선을 홍보했다.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센터로 운영 중인 고신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선정돼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말기 암 혹은 말기 만성폐쇄성폐질환, 말기 만성간경화환자들이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신체 증상관리 자문을 비롯해 다양한 보살핌과 지원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울경 최초로 2022년 4월 앰블런스 소원재단과 협약을 맺어 암 환우를 앰블런스에 태우고 하루 동안 소원 들어주기 사업도 시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2.10.24.]

Focus View



지역의료분권포럼 메디부산 시민건강박람회 참가



고신대학교병원이 10월 28일(금)~29일(토) 이틀 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2년 코메드 지역의료분권포럼에 참가했다. 병원은 시민건강박람회에도 부스를 마련하여 건강체험 프로그램과 유익한 강의로 시민들을 찾았다. 지역의료분권포럼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불균형을 잡자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진다'는 슬로건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지역의료분권 포럼에는 고신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있는 옥철호 교수(호흡기내과)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신종 바이러스와 지역의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열띤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메디부산 건강박람회에서는 고신병원은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와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해 성황을 이루었다. 홍보부스에는 가을철 환절기 알레르기 질환 예방교육과 아토피 예방활동 상담활동을 진행했으며 고신대병원은 의료상담과 다양한 홍보 및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2022. 10. 31.]

두 번째 몽골 현지 의료거점센터 개소



고신대병원이 10월 29일(토)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의 토파즈 병원(병원장 S.Erkegul)에서 원격진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양국의 의료협력을 돈독하게 맺어나가기로 했다. 개소식에는 오경승 병원장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고신대병원 의료진과 몽골 현지 의료진을 직접 연결하여 원격진료 시연을 실시했다. 또한 중증질환·만성질환 환자 진료 및 고신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던 몽골환자의 치료 경과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도 진행했다. 개소식 이후 토파즈병원, 몽골국립철도병원 등 의료기관을 포함해 국제진료 및 원격의료 관련 몽골 업체 7곳과 MOU를 체결하며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상품 및 주변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신대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몽골 현지와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하며 몽골 환자유치와 의학교류에 앞장서 왔다. 2017년에는 국립법무부내무병원(그린병원)에 해외의료거점센터를 개소해 몽골내 최초로 원격의료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2022. 10. 31.]

유행성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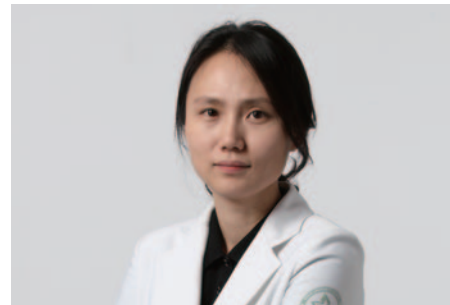
고신대병원은 11월 2일 유행성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 훈련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송이두창이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상의 감염병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진행됐다. 의심환자가 병원을 방문 시 안내요원이 내원객을 통제하고 의심 환자를 응급실 격리실로 이송하는 과정이 실제상황처럼 전개됐다. 전민지 감염관리실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유행성 전염병은 언제든 우리 일상을 파고 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감염병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과 병원의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원송이두창과 같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법정감염병에도 빈틈없는 대처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 11. 03.]

Focus View



이비인후과 김주연 교수, 세계 3대 수면의학 인증의 자격 취득



김주연 교수(이비인후과)가 유럽 수면학회의 '수면의학 전문가 자격(Somnologist- Expert in sleep medicine)'을 취득했다. 유럽 수면의학 전문의 자격시험은 미국수면학회(AASM), 세계수면학회(WSS)와 함께 세계 3대 수면의학 인증시험 중 하나로 꼽힌다. 정상 수면 및 수면생리, 불면증, 코골이/수면 무호흡증, 기면증을 포함한 여러 수면 질환과 수면 다원 검사,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 등의 검사와 관련된 수면의학 기초 및 임상 분야에 대한 지식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한다.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 수술 분야의 권위자인 김주연 교수는 2015년부터 2년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수하며 쌓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다양한 임상 질환의 진단과 치료,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김주연 교수는 "수면장애는 삶의 질을 저하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수면장애의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2022. 11. 06.]

LG전자, 고신대병원에 식물생활가전 '티브온 미니' 기증



LG전자가 환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식물생활가전 'LG 티브온 미니' 50대를 고신대병원에 기증했다. 기증식은 11월 8일(화) 오후 2시 30분 고신대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 대회의실에서 LG 전자 최규남 상무, 스프라우트컴퍼니 신상윤 대표와 오경승 병원장, 옥철호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증식은 티브온 미니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티브온 미니는 퇴원을 앞둔 소아 환자, 중환자 등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선물로 전달하거나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병실에 비치될 예정이다. 오경승 병원장은 "이렇게 티브온 미니 50대를 기증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단순한 화분이 아니라 양액 자동조절시스템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어 환자들의 정서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 스프라우트 컴퍼니 신상윤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환자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새 생활을 티브온'이라는 티브온의 슬로건처럼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 11. 09.]

이비인후과 이환호 교수,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안전분과위원장 위촉



이환호 교수(이비인후과)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안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의료기기위원회는 의료기기법 제5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사·심의하는 기구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 위원회는 위원 수 확대(총 200명), 5개 분과위원회 신설(총 10개) 등 구성을 개편하여 심의의 전문성 확대와 의료기기 정책·기획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안전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환호 교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재평가에 관한 사항,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위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기기에 관한 중요 사항 조사·심의에서 안전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환호 교수는 "이번에 의료기기위원회 안전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철저하게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 11. 11.]

Focus View



건보공단과 함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산도 의료봉사 참여

-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 의료 접근도 낮은 지역에 파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간 중단됐던 의료봉사활동을 올해부터 재개했다. 이에 11월 11일 고신대병원은 공단, 부산대치과병원 등 지역 의료진과 경남약사회,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경남 통영시 한산도를 방문해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공단의 '사랑을 실은 건강천사' (이하 '의료봉사')는 의료 접근도가 낮고 의료시설이 낙후된 농어촌 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단에서 지역과 협력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특히 한산도는 노인 인구가 51.6%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상 복합 만성질환자가 많고, 5가지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많은 점을 착안해 진료를 마친 주민들에게 복약지도를 위해 '안 먹는 약(폐의약품) 수거' 사업도 병행했다. 진료를 받은 한산도 주민은 "아프면 진료를 받으러 섬 밖으로 나가야해 많이 번거로웠는데 이렇게 의료진이 진료버스까지 싣고와 마을을 찾아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2022. 11. 11.]

카자흐스탄 제1병원과 의료관광상품 개발 위한 MOU체결

- 중증의료상품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서구의료관광 특구 행사에도 참여



카자흐스탄 제1병원(병원장 카리예브 어네스트) 일행이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고신대병원을 찾아 협약을 체결했다. 고신대병원은 카자흐스탄 방문단 일행에게 다양한 종합검진 상품을 제공했으며 제1회 서구의료관광특구 축제에서 카자흐스탄 제1병원을 비롯한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코로나 이후 끊어진 카자흐스탄 의료관광의 회복을 위한 신호탄을 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고신대병원은 센신코리아 (주)암면역연구소 (소장 쿠라모치 츠네오) 와도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센신코리아는 내년부터 고신대병원과 첨단재생치료와 관련된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승 병원장은 개막식에서 서구의료특구 지정에 대해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수여 받았다. 오후 1시에는 옥철호 교수가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여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2. 11. 15.]

희귀난치병 앓고있는 여고생, 고신대병원서 수능 도전



11월 17일 고신대병원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A양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A양은 3세 때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인 '장쇄 수산화 탈수소효소 결핍증' 진단을 받았다. A양은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글리코겐이 사라지고 나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 하지만 이런 난치병도 A양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A양의 부모와 병원 측은 안전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교육 당국에 요청해 입실실 시험을 허락받게 됐다. A양의 어머니는 "건강한 아이도 보내기 힘든 학교생활 12년을 보냈고, 포기하지 않고 하려는 마음이 대견하고 기특했다"면서 "아직 꿈 많은 아이라 어떤 꿈을 꾸는지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도움을 주려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경승 병원장은 16일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희귀병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수능에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1900여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 되어 A양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2022. 11. 16.]

Focus View



호흡기내과 장태원 교수, 대한폐암학회 회장 선출



장태원 교수(호흡기내과)가 11월 11일 대한폐암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폐암학회는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인 폐암 극복을 목표로 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기초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00여 명이 학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학회는 공동연구와 다학제적 진료를 촉진하고 창의적 연구를 발굴 지원하며, 폐암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대한 지침 수립 및 정책 제시, 국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학회의 비전과 미션이다. 장태원 교수는 폐암의 병기를 판단하는 진단법의 한 종류인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세침흡인술'의 대가로, 이 진단법은 PET-CT보다 폐암의 병기를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침단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다. 신임 장태원 회장은 2023년 국제폐암학회(IASLC)와 협력해 세계폐암학회(WCLC) 서울 개최를 앞두고 있어 국제적인 역량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22. 11. 17.]

내분비내과 최영식 교수,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공로패 수상

- 갑상선 초음파 핸드북 발간 참여와 갑상선 검사위한 세침흡인 검사법 도입으로



최영식 교수(내분비내과)가 11월 20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이사장 천영구) 제 21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에서 올해 초 '동영상으로 배우는 핵심 복부초음파' 핸드북을 시리즈로 출간하였다. 후속으로 갑상선 초음파 핸드북이 발간됐으며 최영식교수와 김희경 교수가 필진으로 참여했다. 최영식 교수는 "갑상선 초음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임상에서 초음파가 청진기처럼 활용되고 있어 갑상선 초음파 핸드북을 출간하게 됐다"면서 "이번 핸드북 출간으로 갑상선 질환에 대한 초음파 활용의 가이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갑상선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 12회 암예방의 날'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부회장, 부산경남내과학회 이사장, 영호남내분비대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22. 11. 21.]

신장내과 신호식 교수, 부산시의사회 제41회 의학대상 학술상 수상



신호식 교수(신장내과)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다시 모인 부산시의사회(회장 김태진) 학술대회에서 의학대상을 수상했다. 신호수는 11월 19일 부산시의사회 집행부와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에서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41회 의학대상 학술상'을 수상했다. 특히 신호수는 장기이식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1년간 신장이식 관련 논문(제질량 지수와 이식신장 생존률, 이식 초기 사망률과 관련된 위험인자 등) 4편을 발표하는 지역 의료계에서 가장 눈부실 학술활동을 펼쳐 왔다. 신호식 교수는 수상소감에서 "너무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부산시 의사회와 연구활동에 도움을 준 선배 의료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공팔질환과 말기 신부전 환자에 대한 진료는 세밀하고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로 하다.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여 지역사회에 말기장기부전 환자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 11. 22.]



외래진료시간표

(2022년 12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간내과 990-6101	이상욱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윤병철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식도정맥류
	서광일			●		●	●	●	●			간염,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이식, 간부전
	박현준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	●	●	●	●		●	●	●	●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심장내과 990-6105	차태준	●	●	●	●				●	●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정호	●			●	●		●				심혈관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김현수		●	●		●			●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
	임성일	●				●	●	●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봉준		●		●			●		●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수진			●			●				●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내분비내과 990-6102	최영식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권수경		●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김부경	해외연수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갑상선 암
	박태훈				●						●	내분비(당뇨)질환
혈액종양내과 990-6107	신성훈	●		●			●		●		●	두경부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월,금 오전진료는 신환, 낮병동, 호스피스 상담
	이호섭		●	●	●				●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			●			●		●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				●			●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현엽	●		●			●			●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소화기내과 990-6103	박선자	●	●	●	●	●	●	●	●	●	●	궤양, 물혹,암,염증 신경
	박무인	●	●	●	●	●	●	●	●	●	●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기능성위장관질환, 소화기암
	문 원	●	●	●	●	●	●	●	●	●	●	크론병, 궤양성대장염클리닉, 소화기질환
	김성은	●	●	●	●	●	●	●	●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위암, 식도암, 소화기질환
	김재현	해외연수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대장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정경원	●	●	●	●	●	●	●	●	●	●	치료 내시경 (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지아 (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손민영	●	●	●	●	●	●	●	●	●	●	소화기 일반질환
호흡기내과 990-6104	정만홍				●					●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태원	●				●	●	●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			●		●		●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제훈	●	●			●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렴
	김지원										●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렴
신장내과 990-6108	임 학	●				●	●	●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혈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연순			●	●			●		●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 (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신호식	●	●			●	●		●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김예나		●	●	●					●		신장질환
	이나겸										●	신장질환
방사선종양학과 990-6395	박경란	●					●	●	●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			●	●			●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최지훈			●	●	●			●			두경부암,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유제상	●	●		●					●	●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마취통증의학과 990-6267	류시정	●						●				통증관리
	김두식			●					●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강동희				●					●	●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옥					●	●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성형외과 990-6131	박진형	●	●						●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형석	해외연수										당뇨발, 피부암, 하지재건, 두경부재건
	김홍일					●	●				●	미용, 수부외과, 미세수술
	김윤수			●	●					●		유방 재건 및 유방 성형, 체형 성형(비만), 흉터 성형, 안면 외상
	전공의							●				
재활의학과 990-6156	김기찬	●		●					●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정호중		●			●	●			●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심영주		●			●	●	●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이재현	●		●	●				●		●	근골격계 및 스포츠 재활, 척추 및 관절질환, 어깨통증, 허리통증, 목통증, 외상성 뇌손상, 삼킴 장애, 호흡재활, 초음파유도 중재시술, 신경근골격 초음파, 척추중재시술
정형외과 990-6130	손정환										●	슬관절부병변, 관절염
	권영호	●					●					미세수술, 수부병변
	정소학			●				●				근골격계종양
	김창수		●			●				●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지연	●					●				●	족부(발, 발목)질환 및 스포츠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안과 990-6140	이상준		●		●			●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승욱	●				●			●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창주	해외연수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임재완			●			●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녹내장
가정의학과 990-6155	최종순			●	●			●	●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 요법, 특이증상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완화의학, 노인의학
	공은희	●	●			●	●					암생존자 통합 건강관리, 임상영양, 가족건강관리, 금연, 기능의학
	강지훈											암 경험자 평생 건강 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 클리닉, 유전체 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노인의학
	배설연					●				●	●	가정의학과 일반진료
핵의학과 990-6660	전성민		●				●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김희영								●			핵의학과 일반진료
	김범수				●						●	핵의학과 일반진료
정신건강의학과 990-5070	김호찬	●	●				●	●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 (조현병, 기분장애)
	이상신	●				●				●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이윤나			●	●						●	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일반 ※기분장애 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김현석			●	●			●	●			소아청소년정신의학 (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 성인의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 ADHD, 성인 발달/지적장애) 및 보호자 교육 : 매주 목요일 오후
산부인과 990-6120	김원규			●	●					●	●	부인암, 종양,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이태화	●	●			●		●				부인암,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고위험 산모
	오영림	●					●	●	●			부인질환, 산과
	윤항구			●						●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로봇수술
	강태경		●	●		●	●		●	●		부인암, 부인질환, 부인과 감염질환, 호르몬요법,내시경수술,로봇수술
위장관외과 990-6182	윤기영	●	●					●				식도, 위장,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식도역류질환,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수술
	김기현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기질종양), 대사비만수술
	김윤홍								●			위장관외과 일반진료

외래진료시간표

(2022년 12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두경부, 갑상선내분비외과 990-6113	김구상	●	●			●	●		●			갑상선암, 갑상선양성질환, 고주파열치료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양승이	●	●			●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이지은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최소절개수술
유방외과 990-6113	김구상	●	●			●	●		●			유전성 유방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고주파열치료, 로봇경구갑상선 수술 ※ 유전성 유방암 클리닉:월 오후 / 유방암 경험자 클리닉:수 오후 ※
	최진혁	해외연수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종양성형클리닉
	정성의			●	●			●		●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이희승		●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조사랑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대장항문외과 990-6181	안병권			●				●				대장, 직장암,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현	●	●			●	●		●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훈				●					●	●	대장, 탈장, 복강경 로봇수술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990-6112	신동훈	●	●					●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영일	해외연수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체클리닉
	문형환					●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조지훈				●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응급외과 990-6359	정주원				●							응급외과
	이철민							●				응급외과
	김영식						●					응급외과
알레르기내과 990-6152	김희규	●	●			●		●	●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최길순			●	●		●			●	●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비뇨의학과 990-5078	류현열	●				●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최 성		●	●				●	●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김택상	●					●				●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강수환	해외연수										로봇수술, 결석
홍부외과 990-6127	서원태				●					●		비뇨기계 일반질환
	박성달	●						●				일반홍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김종인		●	●	●							일반홍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하지정맥류, 홍부외상
	조성호				●	●	●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말초혈관질환
	이해영	●	●					●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성인심장질환, 홍부외상
	고택용						●		●	●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홍부외상, 일반홍부
신경과 990-6106	이상호			●							●	홍부외과 일반진료
	유봉구	●		●	●	●						뇌졸중, 치매, 두통
	김명국		●		●	●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김민정									●	●	운동장애, 파킨슨
	허소영		●				●	●				다발성경화증, 사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이진형			●			●			●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치료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990-6136	이강대	●						●		●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이환호		●				●	●				이명, 어지럼증, 삼출성 중이염, 만성중이염, 난청, 인공와우이식, 산재	
	권재환				●	●				●		중이수술, 난청, 이명, 어지럼증, 귀의 염증,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고막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볼 켈로이드, 중이 진주종 비과:촉농증, 비성형, 안면재건, 안와골절, 비골골절, 코피, 산재 특별 진찰	
	이형신				●	●						두경부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김주연		●	●					●			일반이비인후과질환,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무호흡증, 코성형 클리닉	
	김영준						●				●	두경부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유태현								●			일반 비과 질환	
	김서빈										●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소아청소년과 990-6123	홍유라				●			●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유진						●				●	미숙아 및 신생아 질환 (신생아 발열, 신생아 황달, 자체중 출생아, 자궁내 성장 지연, 과체중아, 무호흡, 신생아 호흡관련 증후군,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태변혈인 증후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형성 이상, 신생아 감염, 신생아 simple, 폐급 육아증),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이정현		●				●			●		성장클리닉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 (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칼슘 및 인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연규민	●				●					●	소아신경질환 (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섬김	●			●			●			●	소아혈액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정민영		●	●					●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중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천식/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침, 폐렴, 간질성폐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등), 중환자의학	
	최소윤			●		●	●				●	소아소화기영양분과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도질환),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체중증, 소아위장관내시경)	
	전공의				●			●				소아청소년과 일반진료	
신경외과 990-6124	박용석	●	●			●		●				뇌혈관, 뇌종양	
	조혁래	해외연수										뇌종양, 두개저종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해외연수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박민철			●	●				●			신경외과 척추질환, 척추 및 두부 외상	
	김도연	●					●				●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용우					●	●				●	●	뇌혈관 질환,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피부과 990-6146	장민수	●	●			●	●					여드름/주사, 건선, 피부미용, 손·발톱색소질환	
	서기석										●	●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박종빈			●	●			●	●				피부와 일반질환, 피부종양, 알레르기피부질환
	장지윤	●					●				●	●	피부와 일반질환
	전공의	●	●	●	●	●	●	●	●	●	●	●	피부와 일반질환
일반내과 990-6359	이송현	●		●	●	●		●		●	●	일반내과 일반질환	
호스피스완화의료과 990-6359	정원길	●		●		●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류마티스내과 990-6154	김근태		●	●		●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건선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통풍, 골관절염, 섬유근통, 혈관염, 배체트병, 관절초음파클리닉	
	김윤경	●					●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배체트병,관절초음파 클리닉	
감염내과 990-6157	이진영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전민지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진 술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치과 990-5150	김희진	●	●	●	●	●	●	●	●	●	●	치과보존과 일반질환	
	서고은	●				●	●				●	●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감염,외상,임플란트,매복치,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은숙			●	●	●					●	●	치과보철과 일반질환
직업환경의학과 990-6742	김정원		●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 (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					●		●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KOSin 사랑in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당신은 사랑in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직원들은故장기려 박사님의 애민정신이 이
어발아 국내·외 경제적 빈곤한 환우들의 치료에 힘쓰고, 의료 활동 이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고 있으
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사랑
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저희들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비밀스런
생명의 신호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몸의 소리를
듣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